

정부 개성공단 ‘마지막 제안’에 北 묵묵부답

7차 실무회담 전통문 전달… 날짜·장소는 제시 안해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회담 제안이 담긴 전통문을 29일 북한에 전달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관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제7차 개성공단 남북간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회담 날짜와 장소를 제시하지 않고 조속한 회신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전통문 접수 때는 물론 이날 오후 4시 관문점 연락채널 마감 통화 때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마감통화 결과(북측의) 연락관 연장근무 요청이나 우리 측이 제안한 회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25일 6차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지 4일 만에 이뤄졌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장관 성명에서 북한이 다시는 통행제한과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 조치를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북한이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전날 ‘마지막 제안’이라면서 이번 7차 실무회담 제의가 사실상 최후통첩성 대북 제의임을 밝힌 상태다.

정부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개성

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의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이 없을 경우에만 이를 보장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7차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회담이 성사되며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우리 정부가 분명한 재발방지 방안을 전제로 회답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북한이 반발, 회담 제안 수용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 역시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회담 제안 자체는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북한의 신중한 태도를 미뤄볼 때 우리의 마지막 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북한이 역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회담 제의를 거부하거나 이번 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부는 공연한 대로 ‘중대조치’를 결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 조치로는 단전·단수 조치 포함한 공단 폐쇄 조치가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내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업체 관계자 등이 굽은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총선 집권당 승리…野 “부정선거” 반발

캄보디아인민당 68석 차지… 훈센총리 5년 더 집권

훈센 총리는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PP)이 29일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비공식 집계결과 파악됐다.

교도통신은 캄보디아 정부와 정당 소식통들을 인용해 CPP가 초반 집계 결과 전체 123개 의석 가운데 최소한 68석을 차지, 과반을 점유할 것으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이는 그러나 지난 2008년 총선 당시의 90석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삼行政部门이 이끄는 캄보디아국당(CNRP)이 상대적으로 약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CNRP는 현재보다 24석 늘어난 55석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정당 소식통들은 CNRP가 5년전의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집권 CPP의 의석에서 10~22석을 잡식할 것

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당이 과반을 얻을 것으로 보여 올해 집권 28년째를 맞은 훈센 총리는 5년간 더 권좌를 지키는 세계 최장수 지도자 가운데 1명으로 부상하게 됐다.

앞서 대다수 관측통들 역시 훈센 총리를 안정적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야당은 그러나 수도 프놈펜 등 곳곳에서 선거부정이 자행됐다며 항의 시위를 경고하고 일부 격분한 유권자들이 경찰 차량을 불태우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이날 유권자 명부에서 100만표 이상의 명단이 증발됐으며 사상 최악의 선거부정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투표소를 찾았다가 등록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리는 유권자들이 상당수 목격됐다. 삼행시 CNRP 대표는 일단 선거부정의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 지켜보기 전 유권자들의 권리가 무시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항의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중장기 목표를 31일 오후 2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안)’과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대책(안)’ 공청회에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안은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강화를 통한 우주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40년까지의 우주개발 비전과 개발 목표를 제시한다. 2011년 12월 수립한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미래부가 수정·보완해 마련했다.

계획안은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 능력 확보 ▲국가 위성 수요를 고려한 인공위성 독자 개

“2040년내 위성 자력발사”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공청회

정부가 2040년 안에 자력발사 능력을 확보하고 인공위성을 독자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중장기 목표를 31일 오후 2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안)’과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대책(안)’ 공청회에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안은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강화를 통한 우주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40년까지의 우주개발 비전과 개발 목표를 제시한다. 2011년 12월 수립한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미래부가 수정·보완해 마련했다.

계획안은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 능력 확보 ▲국가 위성 수요를 고려한 인공위성 독자 개

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가오는 위성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미래 우주활동 영역을 확보할 우주탐사 전개 ▲지속 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한 우주산업 역량 강화 ▲우주개발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기반확충 등 6대 추진전략을 골자로 한다.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대책은 우주기술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책안은 ▲우주기술 산업체의 역할 확대 ▲우주기술의 수출 활성화 ▲위성정보 활용 촉진 ▲우주기술 융복합으로 신산업 창출 ▲우주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정비 등 5개 종점과제를 제시한다.

미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 우주위원회(위원장 최문기 미래부 장관) 심의를 거쳐 이 계획안을 확정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방정부

정병문, 농아인 복지 발전방안 토론회



제2회 정부 정부 정부

이어 광주시

의회 강은미

원과 김애리 광

주 시 노인장애

인 복지과장, 김현영 나주 수화

통역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

해 농아인 복지 실태의 해결과

수화통역센터의 안정적 발전방

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밤에 나선

최성경 교수(세한대)는 수화언

어의 법적 권리성과 수화통역서

비스에 대한 센터의 역할과 운영

실태, 수화통역사들의 전문인으

로서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문

제를 했다.

광주시 선거위, 선거사진 광주특별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 10일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대한민국 선거사진 광주특별전’, 그 두 번째 전시로 ‘민족’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선거 기록사진 80점과 선거 사진대전 수상작 42점, 박물 자료 29점, 영상자료 2종 등 총 153종의 다양한 전시물 품 등이 선보인다.

또한,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부터 최근 선거에 이르기까지 역대 선거에서 쓰인 투표용지 및 기표용지 등 선거 자료를 처음으로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전시 외에도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투표체험관과 위원회 캐릭터 꾸미기 및 우리 가족 투표용지 만들기를 통한 선거학습관, 포토존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최권일기자 cki@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내달 22일 방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달 하순 한국을 방문한다.

외교 소식통은 29일 “반 총장이 다음달 22일 한국을 방문해 여생간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라며 “총주에 거주하는 모친을 만나고, 다음달 25일 열리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막식에도 참석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의 방한은 유엔 ‘귀향휴가’(home leave) 차 이뤄진다. 유엔은 직원들에게 2년마다 1차례 모국에서 쉴 수 있도록 여비 등을 유엔이 부담하는 귀향휴기를 준다.

광주 4대 종단, 내달 1일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광주 지역 종교계의 비판 목소리가 전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연일, 매주 촛불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도 국정원을 규탄하고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죽구하는 시민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어 4대 종단이 뜻을 모아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라며 입장을 표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매매, 교환, 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 물건

- 디파크 월산면 공장 대지 4882㎡(1477) 건평 150평 대출 2억 범인이 전매. 2억 7천만원
- 계립동 구 호텔건물 대지 542㎡(164) 건평 3968㎡(1200) 목욕탕·찜질방·객실 38개 등 유동시설 등 18억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 411㎡(124) 건평 327㎡(99) 공시지가 2억 8200평 매도 9천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 건물 1235㎡(363) 건물 2동 공시지가 14억 5천 매도 16억 5천
- 월산동 목욕탕·원룸·투룸·대지 508㎡(153) 건평 741평 병원·요양시설 등 적합 16억 5천
- 대인동 대로변서부근 대로변 대지 694㎡(210) 건물 158평 광주은행본점 부근 공시지가에 매도 11억 6천
- 북구 도로변 대지 624㎡(189) 건물 421평. 병원·사무동 적합. 운행 12억 매도 13억 5천
- 신안동 한방병원 대지 645㎡(195) 건평 372평 감정 16억 5천선 대출 11억 매도 13억
- 신창동 대지 301평 건평 715평 회사사옥·병원노인시설 등 적합. 은행 17억 보증금 4억 3천 월 1650만원선 매도 35억

투자·나대지

- 동구 수기동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83개 허가 주택기금 12억 각종협의가능 매도 8억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변 관리지역 2587평 공장·창고 등 적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3천
- 향평군 월아면 13024평 전원주택개발적합 6억 8천
- 두암동 2층주거지 47평 대출 5천 매도 6천
- 광주·담양을 사이 4차선 국도접 2111평 주유소·가스충전소 허가증 대출 10억 매도 12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 5가 광주고용센터 옆

태영부동산공인중개사

★ 매 매 ★

- * 영암 도포면 성신리(야산) 임야 44,470㎡ 계획관리지역 (과수원, 전 개간 적합) 매매가 14억 원
- * 남구 방림동 순환도로변 지하 1층 지상 6층 대지 344㎡ 건평 1576㎡ 매매가 11억 원(법원 적합)
- * 동구 용산동 도시철도공사 뒤편 임야 32,321㎡ 매매가 475㎡(5백원)
- * 북구 오치동 면자골목내 원룸촌 나지내 407㎡ 3억 2천 원원(고시별, 원룸신축적합)
- * 회순읍 훈리 공간빌라 4층 132㎡ 매매가 1억 5천만 원
- * 백운동 서강중 인근 2층상가주택 대지 137㎡ 1층점포 3칸 2층주택 임대 매매가 1억 7천만 원
- * 문흘지구 헌대아파트 후문 맞은편 지상 3층 상가주택 대지 249㎡ 건물 474㎡ 1층점포 3곳 임대 2.3층 주택 4곳 임대 (8천 원 1년 2천만원포함) 매매가 1억 7천만 원

★ 입 대 ★

- * 동구 운립동 중심사 버스정류장 이웃도어 매장 뒤편 2층 레스토랑 198㎡ 룸원비 보증금 3천만원 월 70만원 시비권있음
- * 남구 봉선동 삼익사거리 인근